현대북한연구, 17권 3호(2014), © 2014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7~68.

북한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 연구 (1946~1948)

조직, 당과의 관계, 역할을 중심으로

곽채원(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의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위원회'로 결성, 이후 남·북한의 청년동맹이 통합되기 이전까지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불리었다. 사회주의체제 청년단체의 기본적 기능은 '사상교양'이다. 1948년 11월 청년동맹(민청) 제3차 대회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했으며, 이는 해방 이후부터 정권 수립 시기까지 사회주의체제 청년단체로서의 성격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결성 초기 민청은 소군정의 영향, 당 지도부의 다원성, 공산주의적 색채를 가졌으면서도 대중적 단체를 지향했던 점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당은 민청에 대한 지도를 공식화하는 대신, 민청 지도 간부를 통한 인적 지도, 문화부를 통한 군대 민청단체 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악력을 강화했다. 초기 민청의 역할은 각종 사회개혁과 정권 수립 지원, 그리고 사회적 동원을 추동하는 데 집중되었다.

주제어: 북한, 청년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당의 지도, 김일성

1. 서론

북한의 청년동맹은[1]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조직 중의 하나로서 청년들을 체제 계승의 주체로 양성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1946년 1월 결성된 이후 사상 교양, 당원 충원 및 당과 정부기관 등의 간부 양성, 그리고 경제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당 정책 수행에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 현재 청년동맹은 500만 명에 이르는 만 14~30세의 청년 거의 모두를 포괄한다. 청년동맹이 지도하는 소년단원 300만 명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근로단체이다.[2] 청년동맹의 정치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김일성 사후인 1995년부터 신년공동사설을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 명의로 발표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리고 북한이 외화를 유입하는 공식루트인 대외무역 기관에 청년동맹을 포함시킨 데서[3]

---

1) 북한의 청년 조직으로, 전체 청년을 포괄하는 단체로서는 사회주의 국가들 중 유일하다. 북한의 사전에서 청년 조직의 약칭은 '청년동맹'으로 표기된다. 본문에서는 시기적 구분이 모호해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는 '청년동맹'으로, 시기적 구분이 명확할 때에는 각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 청년동맹의 공식 명칭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다. 1946년 1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결성되었다가 1951년 남북 민청의 통합이 결정되어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1964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그리고 김일성 사후 1996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각각 개편되었다. 본문에서는 맥락에 따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민청', '민청'의 세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북한에서는 남북한 민청 통합 이전에도 '조선민주청년동맹'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파주: 한울, 2011), 397~398쪽.

3)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하도록 수정했다. 청년동맹은 대외무역에 관여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 보충된 헌법 제2장 제36조; 직전의 헌법에는 대외무역에 대해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고 규정했다.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보충된 헌법 제2장 제36조.

확인된다. 또한 김정은의 당권계승 과정에서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는 개정된 규약을 통해 김일성을 청년동맹의 창시자로 공식화했다.[4)]

사회주의체제 청년 조직의 기본적 기능은 청년에 대한 사상교양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근로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서 기능하며, 특히 청년 조직들은 당의 지도사상과 정책을 청년에게 전달하고 교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청년동맹은 1964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편, 사회주의 국가의 청년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공식화했다.[5)] 그러나 청년동맹의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성격은 1948년 민청 제3차 대회에서 일찍이 규정되었다. 해방 이후 1948년 무렵까지 북한 지역에 사회주의적 제도 개혁이 급속히 단행되었으며, 이 시기 사회주의체제 조직으로서 청년동맹의 기본 성격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해방 이후부터 정권이 수립되었던 1948년 무렵까지는 남북한 분단 고착화의 배경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당시 각종 정치적 활동에서 청년들의 영향력은 지대했으며, 이 시기 청년 조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현재 청년 조직의 원형을 밝힌다는 면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 정권 수립 시기까지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본다는 데서 의미 있다.[6)] 그러나 소수의 선구적 연구자들에 의해 청년동맹에

---

4)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규약 제9장 '당과 근로단체' 56조~58조; 당과 청년동맹의 관계는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당의 후비대'로 처음 규정되었다.

5) 1964년 민청 제5차 대회에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직전인 1961년 제4차 당대회는 북한이 사회주의적 체제의 기반을 갖추었음을 공식화했다.

6) 이 연구의 대상은 북한의 청년동맹에 국한되었으나, 이 시기 남북한 모두 청년 조직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서로 영향을 미쳤다.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을 규명하는 미시사적 접근의 연구 성과는 미미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년동맹의 원형으로서 '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의 초기 성격을 조직, 당과의 관계,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사상교양단체로서 민청의 성격이 드러났던 1948년 11월 민청 제3차 대회 직전까지를 다루었다.

첫째, 민청의 조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청년동맹 조직의 '원형'을 분석하고, 민청의 기층 조직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청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기관으로서 청년동맹을 이해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민청과 당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민청에 대한 당의 통제가 점차 강화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형성 과정의 제도적 고찰이라는 의미와 함께,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의 성과가 많지 않은 근로단체들의 성격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사례연구로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결성 초기 민청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당, 국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민청의 기능을 고찰한다.

2. 북조선민청 결성과 조직

1) 북조선민청 결성

1946년 1월 16~17일 평양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청년단체 대표자

회의는 '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위원회'를 결성,[7] 각 도 대표 1명과 임시 의장(방수영)을 합한 전형위원 7명이 위원 23명을 추천하고, 상무위원 11명을 선임했다.[8] 대회 둘째 날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결정서에는 1945년 10월 30일 김일성의 제의에 의해 민주청년동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당시까지 가입한 맹원 수는 40여만 명으로, 11월 이후 노동자, 농민, 소시민, 지식청년을 포함한 전 애국적 청년이 대중적으로 참가한 것, 조선민주청년동맹이 강령과 규약에서 전 조선 각층 청년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으며 유일한 청년단체인 것,[9] 그간 청년단체 조직상의 결점으로 중앙기관이 없고 일부 지역에 동맹 조직이 조직되지 않았으며 간부 구성이 미흡한 점, 유사한 강령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한 점,[10] 반동청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조선민주청년동맹 북부조선위원회 조직의 목적이 북한 지역의 청년운동의 지도이며 따라서 남한의 청년단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것을 적시하기도 했다.[11]

당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하 '조공 분국')의 지도부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 그룹, 토착 공산주의자 그룹 등 구성면에서 다원적 성격을 띠었다. 이들 중 김일성 등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소련

---

7) '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위원회'의 명칭은 잠시 불리다가 줄곧 '북조선 민주청년동맹'으로 불리었다.

8) "민주독립국가건설에 청년의 총력집중 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위원회 결성," 『正路』, 1946년 1월 24일.

9) "北部朝鮮民主主義青年團體 代表者會議決定書," 『正路』, 1946년 1월 25일.

10) 결정서는 강원도청년동맹이 민청의 강령을 그대로 모방했으나 해방청년동맹의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11) 결정서는 평북의 백의청년동맹이 파시스트적 암살단으로 학생 사건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북부조선민주주의청년단체대표자회의 결정서," 『正路』, 1946년 1월 25일.

군과 함께 입북한 빨치산 그룹은 소군정의 영향하에 사회주의적 개혁을 주도하고자 했다. 북한 내 지지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 만주 빨치산 그룹에게는 토착 공산주의자 그룹, 그리고 연안에서 활동하던 해외 공산주의자들(이하 '연안파')의 협조가 필요했다. 반면, 분국 지도부 내 갈등도 존재했다. 토착 공산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박헌영이 이끄는 '서울 중앙'의 지도하에 통일된 하나의 당을 건설하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전선을 표방하며 북한 지역의 공청 조직을 대중적 성격의 민청으로 전환하자는 김일성의 제안에 대한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다.[12] 이러한 협조와 갈등 관계의 복잡한 양상은 북조선 민청 결성과 연관된 회의들의 성격에서 드러났다. 1945년 10월 6일 민청 결성 준비회의에서 김일성이 유일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던 반면[13], 이듬해 1월 민청 북조선조직위원회 결성 회의에서는 첫날 축사를 토착 공산주의자인 오기섭이 맡고, 남한의 청년 조직인 조선청년총동맹준비위원장 리호제가 김일성, 무정, 최용건과 함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민청 조직 결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솔직하게 진술되었으며, 토착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는 김일성과 평남도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민청의 조직 구성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을 드러내며, 따라서 결성 과정에서 토착 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1946년 2월 북조선5도행정국 교육국장 장종식의 일문일답 기사와 3월 2~4일 개최된 평양학생대회는 김일성 주도로 평양

12) 본문에서는 공청을 민청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13) "各界 青年 網羅 民主青年同盟 結成," 『正路』, 1945년 11월 14일.

을 중심으로 한 청년 조직 활동이 별개로 전개되었음을 입증한다. 장종식은 일문일답 기사를 통해, 해방 직후 학생들이 '일부 반동분자들'에게 이용되어,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학생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무비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생층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워온 애국적 혁명투사'를 통해 민주주의적 정치선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국제적 객관 정세와 조선에 대한 문제를 해석·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4] 3월 2~4일 개최된 평양학생대회에는 소군정의 교육 고문관이 참석했으며, 김일성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선언서로서 대회가 종결되었다. 또한 '자본가 지주들의 영향으로 반동적 행동'을 표현하는 '일부 학생들을 숙청'하기 위한 '학생선구대' 활동을 발표하는 등 친소군정 성향이 드러났다.

한편 민청의 초대 조직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9개의 중앙부서로 구성되었다.[15]

1946년 1월 구성된 민청 북조선위원회 상무위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인물들의 배경으로 볼 때 초기 중앙 조직의 구성은 만주 빨치산 그룹, 연안파, 토착 공산주의자 그룹 등으로 구성되었던 지도부의 연합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14) "그릇된 先入觀을 버리고 大國的情況을 살피라. 北朝鮮教育局長 張鍾植氏와 一問一答," 『正路』, 1946년 2월 10일; 이후 김일성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青年의 熱血을 기우려 民主主義國家建設盟誓(金日成同志에게 보내는 편지)," 『正路』, 1946년 2월 27일.

15) "民主獨立國家建設에 青年의 總力集中 朝鮮民主青年同盟北朝鮮委員會結成," 『正路』, 1946년 1월 24일.

<표 1> 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위원회 상무위원 명단

직위명	성명	직위명	성명
위원장	김욱진	부위원장	박일순
조직부장	리응하	총무부장	리창협
선전부장	김상규	농민부장	허인흡
노동부장	김익현	소년부장	엄효숙
여자부장	현금란	학생부장	송군찬
체육부장	리인원		

자료: 『正路』, 1946년 1월 24일 기사를 재구성.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욱진은 1919년 함남 홍원에서 출생, 만주 용정의 중학교에서 수학, 1939년 홍원 제4차 농민조합사건에 연루되어 6년간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농조 활동을 활발히 벌였던 김욱진은 오기섭과 동향으로, 그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 추측된다. 민청 초대 위원장으로서 민청 초기 조직의 정비와 토지개혁 지원 활동, 맹원 증대, 선거 지원 활동 등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제1차 대회에서 오기섭과 함께 43명의 당중앙위원에 포함되었으나, 임시인민위원회에는 선거 이후 뒤늦게 보선되었다. 이때 함께 보선된 6인의 위원은 청우당수 김달현, 교통국장 허남희, 노동부장 오기섭, 보안국장 박일우, 상업국장 장시우, 민청 책임자로서 김욱진이었다.[17]

16)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199쪽.

17) 이들의 면면으로 볼 때 애초 임시인민위원 선거에 나서지 않고 뒤늦게 보선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견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로동신문』, 1946년 11월 28일; 김광운, 위의 책, 418쪽.

초대 조직부장, 제2차 대회 이후 농청부장을 역임했던 리응하 역시 함북 명천 출신으로 토착 공산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인다.[18]

초대 민청 중앙 부서에서 선전부장을 맡았던 김상규는 민청 결성대회에서 개회사를 했으며, 조선공산당 평남도위원회 소속으로 소개되었다.[19] 이로 볼 때 그는 평남도당 소속으로서 민청 결성 준비에 관여했던 친소군정 성향의 인물로 추측된다.

민청 조직의 초대 학생부장이었던 송군찬은 1940년 와세다전문 상과를 졸업한 인물로[20] 1946년 1월 17일 민청 결성대회에서 의장으로서 의사 집행을 진행했다.[21] 그는 9월 제2차 민청 대회에서 기관지 주필로 선임되었다.[22]

2) 조직

북조선민청은 결성 이후 조직사업을 강화했다. 1946년 5월 개최된 민청중앙위원회 제1차 확대위원회는 조직체계와 내부 부서들을 개편

---

18) 1931년 10월 3일『동아일보』에 명천 동군동면 사립보통학교 동사판 사건으로 검거된 8명 중 한 명으로 청진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明川署事件, 八名은 送局,"『동아일보』, 1931년 10월 3일.

19) "民主獨立國家建設에 靑年의 總力集中 朝鮮民主靑年同盟北朝鮮委員會結成,"『正路』, 1946년 1월 24일.

20) "今春東京各專門大學朝鮮人卒業生一覽,"『동아일보』, 1940년 2월 8일.

21) "民主獨立國家建設에 靑年의 總力集中 朝鮮民主靑年同盟北朝鮮委員會結成,"『正路』, 1946년 1월 24일.

22)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한 인물로 방수영을 들 수 있는데 민청 결성 회의에서 방수영이 16일의 의사 진행을, 송군찬이 17일의 의사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민청 준비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김종수,『북한 청년동맹 연구』(파주: 한울, 2008), 144쪽; 김광운,『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199~200쪽. 1950년대 후반 연안파 숙청 시기 송군찬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으로 있다가 숙청되었다.

하고, 맹원 심사 및 맹증 교부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초급단체 사업 강화를 위해 「초급단체공작요강」을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13일 김일성이 민청사업의 강화 발전을 강조한 이후인 5월 30일 각 도당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도민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23] 김일성은 회의에서 일제의 사상적 잔재가 남아 있는 청년들에 대해 민청의 훈련과 교육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향후 과제를 제기했다.[24] 민청의 간부진 강화와 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 민청의 선전망 확대 및 민청선전원제도 수립, 간첩 색출, 학생사업 강화, 여성간부 양성, 소년단 사업 강화,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관계 강화, 특히 학생들과의 사업 강화를 강조하면서 해방 직후 학생들의 반소·반민주 개혁 시위 등을 언급했다. 또한 민청이 학생들을 교양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동적 성향의 학생들은 극히 일부이므로,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다루지 말고 개별적으로 각자의 성분에 따라 교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

1946년 9월 29일 개최된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2차 대회 무렵에는 맹원이 130만 명으로 증가했다. 김일성은 대회에서 민청원들에게 11월 3일 예정되어 있는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선전사업과 농업현물세 납부 및 추수돌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직 강화를 위해 청년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양사업을 전개하고

23) 김일성, "민주 조선 건설에서의 청년들의 임무(각 도당 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도민청 위원회 위원장 련석 회의에서, 1946년 5월 30일)," 『청소년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2, 동경: 조선청년사, 1966.9(번인출판)〕, 7~12쪽.

24) 연설에서 김일성은 민청의 맹원이 80여만 명이라고 밝혔는데, 1월 민청 북조선위원회 결성 시점으로부터 약 3배(박용국), 혹은 약 2배(정로 기사) 증가한 숫자이다. 위의 글, 7~12쪽.

25) 위의 글, 7~12쪽.

<표 2> 민청의 중앙 부서 비교(1946년 1월 vs 1946년 10월)

민청 결성대회(46.1)		민청 제2차 대회 이후(46.10)		
부서명/직위	부서장	부서명/직위	부서장	부서 구성
위원장	김욱진	위원장	김욱진	
부위원장	박일순	부위원장	노 민 오운식	
조직부장	리응하	조직부장	안병기	총 9명 －부부장, 맹원검찰과장, 맹원검찰과원, 지도원
총무부장	리창협	총무부장	김동수	총 12명 －서무과장, 서무접수, 서무과원, 서무잡역, 서무소제, 경리과장, 경리과원, 자동차 담당 2명
선전부장	김상규	선전부장	염상경	총 12명 －부부장, 일반선전과장, 일반선전과원, 맹원교양과장, 맹원교양과원, 지도원, 제작
농민부장	허인흡	농청부장	리응하	총 3명 －지도원 2명
노동부장	김익현	노청부장	허환	총 3명 －지도원 2명
소년부장	엄효숙	학생 소년부장	김채순	총 6명 －부부장, 학생과장, 학생과원, 소년과장, 소년과원
학생부장	송군찬	체육부장	김○○	총 2명 －지도원
여자부장	현금란	신문편집실	송군찬 (주필)	총 6명
체육부장	리인완	검열위원회 위원장	박원균	총 2명 －서기
		프린트실	박창형 (책임자)	총 5명

자료: 『正路』, 1946.1.24; 북조선민청 제1차 상무위원회 회의자료(1946.10.2);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267를 참고해 재구성.

‘진보적 혁명사상으로 무장’해 민청 내 사상 통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

민청 제2차 대회 이후에는 조직이 <표 2>와 같이 개편되었다.

1946년 1월 민청 결성 대회와 1946년 10월 제2차 대회 직후의 중앙 부서를 비교해보면 결성 당시에 비해 민청의 중앙 부서 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부위원장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위원장단의 업무가 확대되어 위원장 및 2명의 부위원장이 사업 영역을 분담해 활동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민청 중앙위원회나 상무위원회의 지시 문건은 대개 부위원장(노민 부위원장 이후 리영섬 부위원장으로 교체)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아 부위원장은 민청 내부 행정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욱진 위원장이나 오운식 부위원장은 실제 활동은 하고 있으나 이들 명의의 지시 문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검열위원회와 신문편집실[27]이 신설되었고, 농민부는 농청부로, 노동부는 노청부로 개편되었고, 학생부와 소년부는 학생소년부로 통합되었다.

셋째, 인원면에서 부서의 규모는 선전부(12명), 총무부(12명), 조직부(9명), 학소부·신문편집실(6명), 노청부·농청부(3명), 체육부(2명)의 순이며 이로써 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부서의 규모면에서 선전부가 가장 위상이 높고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시 민청이 선거와 정권 수립 등과 같은 정치적 일정에 따라 일반 대중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 및 선전사업에 주력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26) 위의 글, 13~17쪽.

27) 민청의 기관지 창설은 1946년 1월 회의 결정서에서 제기한 바 있다.

총무부의 경우 선전부와 함께 중앙 부서 중 규모가 가장 큰데, 민청의 간부 축소 결정이 있은 후 각 도시군의 총무부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다. 농민부가 농청부로, 노동부가 노청부로 개편되었는데, 실제 이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들이 민청에 가입한 청년들 중 농민 청년과 근로 청년을 담당한 것인지, 아니면 복수 단체에 가입할 수 있었던 당시 조건하에서 농민동맹과 직맹의 청년들까지 포괄했던 것인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이들 부서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부서 인원이 모두 3명씩) 민청 맹원 중의 해당 계층 청년들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학생소년부는 비록 학생부와 소년부가 통합되긴 했지만 부서 인원이 6명으로 조직부 다음 가는 규모였다. 이것은 당시 민청이 학생사업과 소년단사업에 큰 주의를 기울였음을 드러낸다. 신문편집실의 경우 학생소년부와 마찬가지로 6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문편집실의 위상이 높다기보다는, 부서의 특성상 기자, 인쇄부 등 전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설된 검열위원회는 민청 중앙 부서가 지시한 사안들의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열하는 업무를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검열위원장 1인과 서기 1명의 구성으로 중앙 부서의 사업들을 모두 검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열이라는 제도가 민청에 도입된 초기로서 이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47년에는 민청 초급단체들에 대한 조직 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평북 선천군[28] 동림 3구 초급단체 회의록에 따르면 1947년 2~3월

28) 평안북도 선천군(宣川郡)은 평안북도 서부의 중심에 위치한 농업 지역이다. 경제적으로 농업이,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발달했다. 조선 시기부터 서울-신의주 간 도로가 개통되어 조선과 청나라 간 문화·경제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이 맹원 재등록과 맹증 징수 사업이 실시된 이후 6~7월에 2차 맹원 재등록 사업이 실시되었다. 8월부터 11월까지 중앙에서 작성된 유일 교재에 의한 집중교양사업이 진행되었고, 12월부터 1948년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한 동기 교양사업이 진행되었다.[29] 또한 2월과 3월의 맹원 재등록, 맹증 징수 사업을 통해 '초급단체 내 부분적으로 불순 경향을 퇴치하고 교양 간사들을 개선하여 교양을 강력히 침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작업의 배경으로, 1947년 무리한 맹원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급단체의 조직적 강화가 병행되지 못한 점이 비판되었다.[30]

선천군 청녕 초급단체의 경우도 비슷한 일정을 진행했다. 회의록에서 1946년 조직사업이 "원칙 없이 종합주의적으로 맹원들을 흡수한 관계로 우리 초급단체는 강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47년 2~3월 맹원 재등록 사업과 3~4월 맹증 수여 사업을 통해 '불순분자, 남조선 도주자,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10명의 맹원을 제외하고 이색분자들을 제명해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6~7월 맹원 재등록 사업을 재실시해 조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7월 간사를 새롭게 선출했

이는 선천군에 기독교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김성보는 선천군에서 강력했던 기독교적 민족·자본주의 계열의 영향력이 해방 후 빠르게 소멸되고, 급진적 농민과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이를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지방사례를 통해 본 해방 후 북한사회의 갈등과 변동: 평안북도 선천군," 『동방학지』, 제125집(2004), 169~220쪽.

29) 제2차 대회 시기에도 맹원 재등록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급단체는 회의에서 '1947년부터는 동맹원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이며 동맹 조직에서 더욱 튼튼히 집결'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동림3구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1948.9.18),"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30) 위의 자료.

다. 8~11월 정치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집중교양사업을 진행, 11월~1948년 3월 유일제강 교재로 동기 맹원교양사업을 진행했다.[31]

초급단체들의 일정으로 볼 때, 민청 제2차 대회 이후인 1947년 맹원 재등록을 상반기에 두 차례나 실시하고 중앙에서 제작한 유일제강을 통해 집중교양학습을 진행하는 등 민청단체들의 조직 정비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8년 2월 16일 북조선민청은 제9차 중앙위원회에서 제3차 중앙대회의 소집 및 지도기관 사업결산과 선거사업을 중지 연기하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제의를 승인했다. 연기의 이유로서 조선임시헌법 초안 인민토의사업과 학생사업, 소년사업 등 중요한 사업에서 전 동맹의 힘을 집중하기 위함을 들었다.[32] 그러나 제3차 민청대회의 연기는 1947년도의 조직재정비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3월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는 '도간부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이 미약하고 사상적으로 부화하는 사실들이 있으며 간부들 간에 사상적 통일과 강한 규율이 서지 못해 책임 간부들의 지도하에 통일적으로 사업하지 못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시·군의 일부 부서 폐지와 간부 정원 축소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33] 이 시기 간부 축소와 부서

31)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청넝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1948.9.15),"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32) "북조선민청 제9차 중앙위원회 '제3차대회 소집 및 각급 지도기관 사업 결산과 선거사업 연기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1948. 2.1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33) "북조선민청 제70차 중앙위원회 '도시군 부서 일부 폐지와 간부 정원 축소 및 사업방식 개선에 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섭, 1948.3.3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개편 방침의 특징은 총무부와 같은 사무·지원 부서를 축소하고, 조직선전부장에게 실무의 전권을 주고, 통신원·등기원 등 통계·재정·서무의 전문 인력을 두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4월까지 지정한 정원 내에서 새로 간부를 선거하도록 하는 지시는, 제3차 대회 이전에 기존의 간부들을 교체하려는 정치적 의도 여부를 의심하게 한다. 간부 축소 결정은 민청 중앙의 노민 부위원장에서 리영섬 부위원장으로 교체된 직후 채택되었으며, 기존의 간부들에 대한 질책을 담고 있었다.

1948년 4월 6일 민청 중앙 조직부에 통신과를 설치해 하부로부터의 과업들이 제때 정확히 구체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통신지도사업을 강화하는 결정이 채택되었다.[34] 통신과의 설치는 민청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화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민청단체들이 민청 중앙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35] 이즈음인 4월 28일 김일성이 민청 간부들을 직접 만나 「민청사업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강령적 교시」를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36]

3) 간부 및 맹원 성격

1946년 9월 민청 제2차 대회 이후 민청 중앙간부 일부가 교체되었다. 부위원장은 기존의 1명 체제에서 2명으로 증가했고, 노민과 오운식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1948년 3월 부위원장 노민의 후임으로 선임

34)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통신과 설치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1948.4.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35) 1955년 당조직지도부 내의 통신과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설명이 『근로자』에 실렸다.

36) 채종완, 『청년사업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124쪽.

된 리영섬은 북조선로동당 청년부 부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후 선거 연기, 간부 축소 등 간부정책의 변화를 꾀했으며 이것은 민청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화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37]

오운식은 1919년생으로, 1946년 9월 민청 제2차 대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국제 활동을 활발히 벌인 인물로, 1949년 3월 29일~4월 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레닌 공청 제11차 대회에 민청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으며[38] 그 외에도 체코슬로바키아, 핀란드 등에 북한 청년 대표로 참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6·25전쟁에 참가해 정전 후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부인 최순자 씨와 함께 생포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그는 입산 후 정치부를 담당했으며 모스크바 유학생이었다고 한다.[39]

---

37) 리영섬은 1912년 9월 12일 출생하여 1953년 7월 15일 사망했다. 남로당 출신으로 북한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안치되었으며, '남조선혁명가'로 기록되었다. 정전 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조선혁명가'로 칭해진 것으로 보아 전쟁 중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남한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807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217, 446쪽. 남한 출신이었음에도 1946년 제2차 당대회에서 민청 위원장이던 김욱진 대신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임되었을 정도로 당의 신임과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8) 편집부, "레닌공청 11차 대회는 무엇을 토론·결정하였는가," 『청년생활』, 제2권 제6호(1949.6), 20~21쪽.

39) 1951년 지리산에서 부인 최순자와 함께 생포되었는데 그의 당시 나이는 32세로 기록되었다. 함께 체포된 자로 조일평(당시 36세, 김일성종합대학 강사, 이승엽 지령으로 남부군단 사령부 정치위원) 등이 있다, "斷末魔의 지異殘匪 討伐戰 從軍記 上," 『동아일보』, 1951년 12월 25일; KBS 다큐멘터리 <현대사 발굴>, 1991년 6월 27일; 인민군 장교였던 최태환은 빨치산 참전 당시 오운식과의 조우를 회상했다. 오운식과 최태환은 1948년 9월 제2차 민청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최태환은 보위성 민청위원장으로서 인민군대 내의 민청조직대의원 자격으로, 오운식은 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최태환은 오운식이 서너 살 위였다고 회고했다. 오운식은 중앙당 간부였으며 인민군 남진

<표 3> 민청 맹원 수 변화(1945년 10월 20일~1948년 6월)

시기	맹원 수가 언급된 단서 혹은 출처	맹원 수	비고
1945.10.20	소군정 보고서	남북조선의 공청 회원 수 6,000명	북한 지역 공산주의자 수는 3,000여 명
1946.1.16~17	민청 북부조선위원회 결성	맹원 수 246,000명 혹은 40여만 명	1945.12. 북부조선공산당원수 4,530명 1945.12.11. 조선청년총동맹 맹원 수 723,000명
1946.5.30	각 도당 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도민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	맹원 수 80여만 명	1946.4 북부조선 조공당원 26,000명
1946.8.28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130여만 명 혹은 129만 명	면 이상 민청 간부의 85%가 당원. 1946년 8월 이전 직총 청년부가 민청에 통합.
1946.9.29	민청 제2차 대회	맹원 100만 명 혹은 맹원 130만 명	
1947.6.23	세계청년축전 참가대표 환송체육대회	80만 명(1949년판 연설기록) 100여만 명(1966년판 연설기록)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된 맹원은 188,000명으로 전체 인민위원 수의 43%
1947.12.17	북조선직업총동맹 제2차 중앙대회 연설(김일성)	민청 맹원 80만 명	직맹원 40만 명
1948.6		1,248,570명	

자료: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김일성, "미래의 조선은 청년들의 것이다: 세계 청년 축전에 참가할 대표 환송 체육대회에서 한 연설(1947.6.23),"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근로자』, 제1호(122)(1956.1.25), 70~80쪽; 『正路』, 1946년 1월 24일, 25일, 1946년 5월 24일; "民主改革과 人民的結束," 『조선중앙년감 1949年版』(조선중앙통신사, 1949);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제1편』(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AGShVS RF. F. 172. OP 614631. D. 23(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CWIHP)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NKIDP) Record ID 114890), pp.21~26를 참고.

후 민청사업을 위해 남한으로 내려왔다. 전쟁 중에도 『볼셰비키당사』, 『국가와 혁명』 등의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했을 정도로 지식수준이 높았다. 전쟁 중 빨치산 전북도당에서 문화부사령의 직책을 담당했다.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서울: 공동체, 1989), 236, 295, 299~300, 315쪽.

1948년 정권 수립 이전까지 민청 맹원 수는 <표 3>과 같이 변화했다.

소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해방 직후 남북한 전역의 공청 맹원 수는 1945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6,000여 명,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 수는 3,000여 명,[40] 1945년 12월경 북한 지역의 공산당원 수는 4,530명으로 추산되었다.[41]

1946년 1월 17일 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위원회 결성 당시 민청 맹원 수는 약 40만 명으로 발표되었다.[42] 1945년 12월 결성된 남한의 조선청년총동맹은 맹원 수를 72만 3,000명으로 발표했는데[43] 1945년 10월 20일 남북 전역의 공청원 수가 6,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수개월 만에 남북한 각각 청년단체의 맹원 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민청 맹원의 확장 사업은 1945년 10월 6일 평양에서 준비회의가 개최된 이후 공청 맹원 모집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민청이 공식적으로 결성되기 이전인 1945~1946년 초 맹원 등록이나 맹원 통계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발표 시기에 따라 맹원 통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와 관련한 맹원 수의 통계는 신뢰하기 어렵다. 1946년 5월 30일 맹원 수는 80여만 명으로[44] 결성

---

40) 이 보고서는 10월 20일~12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당시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 수를 3,000명으로 기록했다. AGShVS RF. F. 172. OP 614631. D. 23(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CWIHP)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NKIDP) Record ID 114890), pp.21~26.

41) 『正路』, 1946년 5월 24일.

42) 『正路』, 1946년 1월 24일; 1946년 1월 25일.

43)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115쪽.

44) 김일성, "민주 조선 건설에서의 청년들의 임무," 7~12쪽.

당시인 1월에 비해 2배 증가했다. 2월 임시 인민위원회 선거와 3월 토지개혁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청의 맹원 확장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토지개혁 사업을 통해 빈농청년의 인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45]

1946년 8월 북로당 창립대회에서 민청 위원장 김욱진은 맹원 수를 130만 명이라고 밝혔다. 김욱진은 민청의 확장과 직총 청년부가 민청에 통합된 것을 원인으로 언급했으며 이 숫자는 같은 해 5월에 비해서도 5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46]

1947년 맹원 재등록 과정에서 80만 명으로 감소했던 맹원 수는 1948년 6월 124만 8,570명으로[47] 반년 동안 5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이것은 이 시기 민청의 지도를 받는 소년단 사업이 강조되어 특히 학교를 통해 소년단원들이 민청원으로 인입되는 숫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946~1948년 사이 실제 초급단체의 맹원 가입 현황을 평북 선천군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북 선천사범인민학교 교원 초급단체의 경우, 가맹 당시 연령대는 14~24세, 가입 시기에 따른 맹원 증감은 전체 30명 중 1946년 20명, 1947년 9명, 1948년 1명이었다. 전체 30명 중 22명에게 1947년 3월~9월 사이 맹증이 수여되었다.[48] 1947년 진행된 두 차례의 맹원 재등록 사업 과정에서 일부 교원

45) 1946년 4월 무렵 북조선공산당원의 수는 2만 6,000명이었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301쪽.

46)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제1편(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16~17쪽. 같은 날 김욱진은 맹원 수를 129만이라고도 언급했다.

47) "民主改革과 人民的結束," 『조선중앙년감 1949年版』(조선중앙통신사, 1949), 91~92쪽.

맹원들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맹원들의 지식 정도는 전문(중퇴 및 졸업) 5명, 중등(중퇴 및 졸업) 24명, 초등(중퇴 및 졸업) 1명이었다. 로동당원은 10명이었다. 교원 청년들은 가정 출신이 다양한 편이었는데, 지주 가정 출신 2명, 중농 가정 출신 6명, 상인 가정 출신 3명, 자유업 가정 출신 1명, 노동자 가정 출신 5명, 사무원 가정 출신 7명, 소시민 가정 출신 1명, 빈농 가정 출신 5명이었다.[49]

평북 선천군 선천면 초급단체 간부 명단에는 1947년 7월 새로 선출된 간사 107명의 정보가 기록되었다. 초급단체의 지도부는 책임자, 조직 간사, 교양 간사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었다. 간부의 연령대는 16~30세로, 로동당원은 49명, 민주당원은 10명이었다. 지식 정도는 전문학교(중퇴 및 졸업) 2명, 중학교(중퇴 및 졸업) 35명, 국문해독 가능 1명, 소학 69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14명, 천주교 1명, 천도교 1명으로 나타났다. 가정 성분은 기업주 3명, 수공업자 1명, 상인 16명, 지주 5명, 부농 1명, 중농 24명, 빈농 26명, 노동 19명, 사무원 10명, 소시민 2명이었다. 본인의 직업 역시 다양했는데 성분은 기업주 2명, 사무원 44명, 노동 34명, 소시민 4명, 수공업자 1명, 상인 3명, 중농 10명, 빈농 4명, 직공 2명, 학생 3명이었다.[50]

평북 '선천군 민청 가맹원서'는[51] 선천중학교 학생 50명의 기록이

48) 나머지 8명에게는 맹증 수여의 기록이 없었다.

49) Item #22-9 "동맹원 명부, 선천사범 부속 인민학교 초급단체,"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01269,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Series WAR20060139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50) Item #32 "평북 선천군 선천면 초급단체 간부명단,"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01269,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Series WAR20060139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포함되어 있다. 1948년 민청 11월 제3차 대회에서 민청 가맹 연령이 16~26세로 규정되었는데, 맹원들이 가입했던 시기의 연령대는 14~18세로 가맹 연령에 미치지 못해도 가맹이 승인되었다. 이 시기 소년단도 운영되었는데 학생 청년의 경우 소년단은 인민학교, 민청은 중학교를 기준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경우 보증인 2명을 함께 기록했다. 가맹 시기와 인원은 1946년 5월 가맹한 인원이 50명 중 8명, 9월 38명, 10월 2명, 1947년 3월 2명으로 나타났다. 9월에 가입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1946년 9월 제2차 민청 대회 전후로 맹원 확장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생 맹원들 중에서는 정당이나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종교를 가진 경우는 1명(기독교) 있었다.[52]

평북 선천군의 경우 기독교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간부와 교원, 일반 맹원을 비교할 때 간부와 교원들의 가정 출신이나 본인 성분이 일반 맹원에 비해 '계급성이 불량한', 즉 부유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1947년 7월 이후에 작성된 선천군 선천면 초급단체 간부 명단의 경우 가정 출신이 지주, 상인, 기업주이거나 기독교도인 경우에도 로동당원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51) 작성 연도 미상. 명단 중 1931년생인 맹원의 나이가 16세로 적힌 것으로 보아 194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Item #27-4 "선천군 민청 가맹원서,"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01269,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2006, WAR200601391, 서울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52) Item #27-5 "선천군 민청 가맹원서,"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01269,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2006 WAR200601391, 서울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3. 북조선민청과 당의 관계

북조선민청 조직의 운영에는 당의 다원적인 지도 그룹들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특히 크게 두 그룹, 김일성을 포함한 해외파 공산주의자들과 토착 공산주의자들 간의 갈등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초기 민청의 운영에 영향을 끼쳤다. 당과 정권의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에 따라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청년들을 포괄하는 사회단체 대표로서 일부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상당 기간 등용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견제 받았다.

북조선민청은 결성 당시 조선공산당 서울 중앙의 지도, 소군정의 영향, 대중적 단체의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공산주의 색채를 노출하는 등 '정체성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청의 초대 위원장은 토착 공산주의자로서 함남 홍원에서 농조 활동을 해온 김욱진이 선임되었지만 상무위원 11명은 소군정과 연안계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선임되는 등 당시 지도 그룹의 다원성을 반영했다.

민청 지도부 구성의 다원성은 당이 민청을 지도하는 데 제한점이 되기도 했다. 특히 위원장이었던 김욱진은 김일성 등 소군정 영향하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서 첫째, 민청 중앙위원회 지시 문서가 대부분 부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둘째, 민청이 결성되고 김욱진이 공식적으로 중앙위원장에 선출된 이후에도 한동안 임시위원장이었던 방수영이 민청위원장으로 불리었던 기록들이 존재하고, 셋째, 김욱진은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당의 민청에 대한 지도의 오류를 지적해 김일성과 대립했으며, 넷째,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창당 당시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43인의 중앙위원회에 포함되었으나 1948년 3월 제2차 북조선로동당대회 중앙위원 명단에서 제외(당시 최경덕 직맹위원장, 조영 여성위원장 등 사회단체장들은 포함되었음)되었던 것, 그리고 오히려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리영섬이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53]

김욱진과, 김일성 등 분국 지도부와의 갈등은 민청 제2차 대회 직후 개최된 1946년 10월 2일의 상무위원회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김욱진을 비롯한 신임 중앙집행부장들이 참석한 이 날 회의의 안건은 7건이었는데 안건이 논의된 순서는 "1. 중앙직원 정원 급료 및 배치에 대하여, 2. 검열 의뢰에 대하여, 3. 동기 석탄 확보를 위한 운반 작업에 있어서 하급 민청에서 할 사업에 대하여, 4. 추수 돌격, 농업 현물세 납부, 추기 파종, 추경 운동에 관한 민청의 협력에 대하여, 5.선거사업에 관한 민청과업의 구체적 실시에 대하여, 6. 10월 사업계획서, 7. 남조선 파업 노동자 방조에 대하여"였다. 논의된 최초의 안건인 '중앙직원 정원 급료 및 배치에 대하여'는 민청 중앙 조직에 대한 것이었고, 특이하게 '선거선전에 관한 민청과업의 구체적 실시에 대하여'가 다섯 번째 순서로 배치되었다.[54]

당시 김일성이 선거의 중요성을 당 내외에서 강조하고 있던 상황에서, 선거선전사업이 다섯 번째로 논의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 회의의 진행을 김욱진 위원장이 했던 것을 감안했다면 안건 배치

53) 민청위원장이 당중앙위원 명단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는 1948년 제2차 당대회가 유일하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민청위원장 박용국은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1961년 제4차 대회의 경우 민청위원장인 오현주는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되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941~944쪽.

54) "북조선민청 제1차 상무위원회 회의자료(1946.10.2),"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267.

에는 위원장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었다고 추측된다.[55]

이처럼 '민주개혁' 등 당면한 정치적 일정을 시급히 진행하기 위해, 민청은 충분히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무위원회와 중앙집행 부서가 구성되었지만 초기 민청은 이처럼 중앙 조직조차 안정되지 못했다.[56]

1) 당의 사회단체 지도를 둘러싼 갈등

1946년 개최된 북로당 창립대회에서 대표적 사회단체들인 직총 대표 최경덕과 민청 대표 김욱진은 당의 사회단체 지도 방법의 결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최경덕은 북로당이 대중적 성격을 가졌지만 당은 '인민의 전위부대'이므로 사회단체와는 다르며 당은 광범위한 인민을 포괄하기 위해 사회단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는 당의 외곽에서 대중을 발동·동원·교육하기 때문에 북로당은 스스로 대중적이라 해서 사회단체를 경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의 지도를 적극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직업동맹이 모든 직장, 공장, 광산에 초급단체를 조직하는 등 민주건설과업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이 '푸랙치(당조)'를 통해 사회단체를 검열·원조하고 우수한 간부를 배치하며, 단체의 대중적 교양사업을 조

55) 이 연구는 토착 공산주의자로 추정되는 김욱진이 능력과 경험으로 인해 등용은 되었으나 김일성 및 다른 지도 그룹들의 지속적인 견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광운은, 1946년 10월부터 김일성의 노선에 적극 추종했던 방수영과 김욱진이 그 공을 인정받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 등 간부로 선임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199쪽.

56) 결성 회의 첫날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방수영은 김욱진 초대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한동안 민청위원장으로 불리었다.

직하고, 대중 동원과 훈련사업을 바르게 집행하는 등 사회단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57]

민청 대표로서 김욱진은 양당 합당 과정에서 민청에 발생한 오류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역시 민청이 짧은 시간 내에 맹원의 수를 129만여 명으로 확장하고, 민청 면 조직 이상 간부의 85%가 당원일 정도로 민청이 '당원을 길러내는 학교', '로동당원을 길러내는 저수지' 역할을 했던 것에 반해 민청에 대한 당의 지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욱진은 평남토지개혁 당시 당이 당조를 통해 민청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청 내의 당원들을 차출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민청 간부층이 약화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소년단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58]

토착 공산주의자들로서 중요한 사회단체들의 수장이었던 최경덕, 김욱진과 당의 관계는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의 관심과 지도를 절실히 요구했던 민청, 직업동맹의 대표들에 대한 김일성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일성은 사회단체에 대한 교양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책임을 '당' 자체가 아닌 '사회단체의 당원인 간부들'에게 돌렸다.[59] 그의 변명은, 당만이 사회단체를 영도해야 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으며 각 당이 사회단체를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단체를 잘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로동당원뿐 아니라 다른 당 사람들과도 정책 실현에 협조해야 할 것도 지적했다.[60] 김일성은 민청에 대해서, 130만 명의 맹원을 가

57)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제1편, 86쪽.
58) 위의 책, 51쪽.
59) 위의 책, 55쪽.
60) 위의 책, 56쪽.

졌지만 교양사업이 부족하며, 당원들은 민청을 포함한 사회단체 조직원들을 지도 교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간단히 언급했다.[61]

사회주의체제에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의 개념으로 발전한 사회단체들의 성격으로 볼 때, "당만이 사회단체를 영도해야 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으며 각 당이 사회단체를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단체를 잘 지도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오히려 당이 당조를 통해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를 해줄 것을 촉구한 민청과 직총의 위원장의 주장이 당시의 상황에서 타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주장은 사회단체에 대한 당의 지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사회단체를 제대로 지도할 수 없었던 당시 당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토착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사회 및 군대 민청단체에 대한 당의 이원적 지도

이 시기 민청단체에 대한 당의 지도는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의 지도는 사회 및 군대의 민청단체를 대상으로 이원적으로 이루어졌다. 군대의 민청단체에 대해서는 문화부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 민청단체의 경우 주로 민청 지도 간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당의 인적 지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당단체 및 사회단체 간부에 대한 당의 인사 권한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당의 사회단체 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제도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1) 위의 책, 56쪽.

(1) 당과 사회 민청단체의 관계

민청에 대한 당의 지도는 민청의 지도부를 통해 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청이 당 정책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도록 조직이 개편되고 조직 활동이 이루어졌다. 본문에서는 당이 사회단체 간부 인선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당의 지도에 의해 민청의 조직은 어떻게 개편되었고 조직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946년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하여'는 당과 사회단체의 중요 간부들을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중앙당 간부부가 취급,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비준하며, 두 번째 그룹은 도당 간부부가 취급하고 도당상무위원회가 비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62] <표 4>에서 드러나듯이, 사회단체의 간부들이 당간부들과 같은 수준으로 당간부부의 영향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청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부부장까지 당간부부가 취급, 중앙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으며 도민청위원회나 시·군민청위원회의 경우 역시 도간부부가 취급, 도상무위원회가 비준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 결정이 당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이 중앙위원회와 각 도당을 통해 민청 중앙위원회와 지역단체의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려 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인사권을 통한 민청에 대한 당적 지도를 드러내는 이 결정은 당간부부가 민청 간부들을 직접 취급하고 중앙당 및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62) "간부 배치 및 이동에 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 『결정집 1946.9~1948.3』, 38~39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246쪽에서 재인용.

<표 4>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간부 배치 및 이동 결정

(1946년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

중앙당간부부 취급 중앙상무위원회 비준	당단체	중앙당부: 각 부장, 부부장, 과장, 지도원
		도당부: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부부장
		시(구역) 당부: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단체	중앙 조직: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부부장
도당 간부부 취급 도당상무위원회 비준	당단체	도당부: 과장, 지도원
		시·군당부 이하: 부장, 부부장, 과장, 면당·공장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단체	도조직: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부부장, 과장
		시·군 조직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면위원장, 부위원장

자료: "간부 배치 및 이동에 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 『결정집 1946.9~1948.3』, 38~39쪽; 서동만, 246쪽에서 재인용한 부분을 참고해 재구성.

비준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민청의 간부들이 민청단체와 당단체 간에 '상호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단체에 대한 당의 인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던 것과 병행해, 민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에 이전보다 적극적·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결정들을 내놓았다.

1946년 5월 13일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민청사업을 강화 발전시킬 것'을[63] 강조했던 김일성은, 5월 30일 '각 도당 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도민청위원회 위원장 련석회의'에 참석해 향후 민청의 과업을 제시했다.[64] 그는 회의에서 민청의 간부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3)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200쪽.

64) 김일성, "민주 조선 건설에서의 청년들의 임무," 7~12쪽.

젊은 인재를 등용하고, 맹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통해 사상을 통일하고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중 선동, 반간첩투쟁, 농촌에서의 증산운동 등 청년들의 정치적·경제적 활동을 독려했다. 농촌의 리, 공장, 학교에 민청선전원을 두고 군중들에게 시사문제를 해설하는 '민청선전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기하면서, 일부 지방에서 민청과 여맹, 로동조합, 농민조합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드러냈다.[65]

민청을 강화할 것에 대한 김일성의 제기는 이후 민청의 조직과 활동에 반영되었다. 1946년 8월 28일 개최된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는 「당원등록과 통계에 대한 세칙」이 규정되었는데 "시(구역) 군 당부는 당원 이동통계 및 당원들의 변동에 대한 등록을 정확히 하기 위해 당원 검찰책에 (가) 지식 정도의 변동, (나) 학설 또는 기술 발명에 대한 것, (다) 외국에 대한 것, (라) 민청 생활에 대한 것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66] 당원 감찰책에 민청 생활에 대한 기록이 요구된 것은, 당과의 관계에서 민청의 중요성을 반영한다.[67]

1946년 12월 6일 오운식 부위원장이 비준한 「민청각급 기관 인원 축소에 관한 결정」은 민청 중앙위원회 및 각 도·시·군·면 민청위원회의 정원을 축소하고, 생산 작업과 관련 없는 초급단체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기존의 면 이상 북조선민청 전체 간부 총수가 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무능력한 간부들을 전출하고, 유능한 간부들을 생산 부문과 정권기관에 공직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68]

---

65) 위의 글, 7~12쪽.

66) 위의 글, 96쪽.

67)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제1편, 11쪽.

68) "북조선민청 제2차 중앙확대위원회 결정서 제3호 '민청각급 기관 인원 축소에

북조선민청 결성 1주년을 앞두고 1947년 1월 11일 개최된 북조선민청 제14차 중앙상무위원회는 건국사상동원운동에 관한 결정과 함께 「전면적 맹원재등록사업에 관한 결정」과 「규약수정에 따르는 제반 조치에 관한 결정」, 그리고 「민청망조직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 세 건의 결정은 민청이 당의 지도를 받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도록 조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1월 11일 결정된 맹원 재등록 사업은 맹적 정리 및 불순분자 숙청, '면·리 인민위원회 사업의 활동 단위가 되는 초급단체의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69] 이후 북한의 문헌은 1947년에 전동맹적으로 진행된 간부심사사업은 민청 내 "불순분자들과 우연분자들"을 제거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실한 로동청년, 빈고청년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함으로써 간부를 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70] 이것을 통해 1947년 민청의 맹원 재등록 사업은 기존의 토착 공산주의자들인 간부와 맹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간부들을 충원하기 위한 당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결정서 제5호를 통해 「규약 수정에 따르는 제반 조치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는데, 면 위원의 경우 "규약 제26조에 의하야 선거하되 정부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의 열성적 청년일군들을 선출"하며 면민청에 면위원회를 둘 것을 채택했다.[71] 이 조항은 비록 선거라

관한 결정'(1946.12.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69)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14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3호 '전면적 맹원재등록사업에 관한 결정'(1947.1.11,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그러나 맹원 재등록 사업은 목표대로 달성되지 않아 사업진행 과정에서 착오를 시정하는 결정이 다시 채택되었다. "제17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2호 '맹원재등록사업상 착오를 시정할데 대한 결정'(1947.2.17 중앙민청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70) 채종완, 『청년사업경험』, 106~107쪽.

는 형식을 거쳐야 했지만 당시 정권기관과 사회단체 간의 인사 이동이 존재했다는 것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등에 복수 가입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복수 기관의 복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같은 날 북조선민청 제14차 상무위원회는 '극비'로 「민청망조직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72] 이 안건은 반간첩투쟁에 대한 민청의 임무에 대해 이미 '김일성 위원장이 우리들에게 똑똑히 제시한 것'이었다고 확인하면서, 반간첩투쟁은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각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간첩에 대한 증오심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의 반간첩투쟁 조직을 재검토하고 새로 '민청망'을 조직할 것을 결정했다. 민청망에 대한 서류는 '극비'로 취급하며 민청망 명부는 2부를 작성해 한 부는 해당급 보안서에, 한 부는 책임자가 보관하고, 기타 서류는 가급적 작성하지 않으며, 민청망 내용에 대한 것은 상무위원 상호 간에도 비밀을 지키도록 할 정도로 신중히 진행되었다.[73]

1월 11일에 채택된 '맹원재등록 심사사업'과 '민청망 사업'은 민청 조직 내 불만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민청의 간부들을 각 도의 토착 공산주의자들 중심에서, 당의 영향하에 있는 신진 청년들과 새로 가맹한 근로·농민 출신 맹원

71)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14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5호 '규약수정에 따르는 제반 조치에 관한 결정'(1947.1.11.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7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14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7호 '극비: 민청망조직에 대한결정'(1947.1.11.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73) 위의 자료.

들 속에서 새로운 간부들을 등용하려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1948년 2월 13일 북조선민청 제9차 중앙위원회는 「동맹조직장성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 맹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면서 민청의 양적 확대와 함께 신입 맹원을 대상으로 근로 청년들과 20세 이하의 어린 청년들에게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74]

1948년 3월 27~30일 북로당 제2차 대회가 소집되었다. 대회에서는 1차 대회보다 토착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배척이 더욱 강하게 가해졌다. 오기섭은 격렬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당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민청 위원장인 김욱진은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대신 1948년 2월 부위원장 노민의 후임으로 민청 중앙에 들어온 리영섬이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명단에 올랐다.[75]

북로당 제2차 대회 직후인 3월 31일 북조선민청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도시군 부서 일부 폐지와 간부정원축소 및 사업방식 개선에 관한 결정」을 채택, 또다시 조직의 정비를 꾀했다.[76] 부위원장 교체 이후 회의의 승인은 대부분 리영섬 부위원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

74) 문헌은 민청 조직의 가입 비율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며 특히 평남도 56%는 '장성이 극히 불량함'이 지적되었다. 평남도는 소군정과 김일성 및 만주 출신 빨치산 그룹들이 해방 직후 주둔하면선 활동했던 지역임에도 민청 가맹 수준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사회단체 강화에 토착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증거이다. "북조선민청 제9차 중앙위원회 '동맹조직장성문제에 관한 결정'(1948.2.13.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75) 리영섬은 노민 부위원장의 후임으로서 이후 민청 중앙의 회의의 승인을 도맡아 온 인물이다. 이 대회에서 갑산계 인물들이 중앙위원(리송운, 박금철)과 후보위원(리효순)에 포함되었다.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돌베개, 2002), 114~115쪽.

76)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도시군 부서일부 폐지와 간부정원축소 및 사업방식 개선에 관한 결정'(1948.3.31.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보인다. 북조선민청은 「통신과 설치」, 「면민청 열성자제도」, 「간부사업세 측 일부 수정」, 「보고제도 확립」, 「재정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 등 민청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련의 지침들을 연속적으로 제기했다.[77]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북조선민청은 「동맹강령 및 규약 수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규약수정초안 작성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리영섬, 오운식, 지창익, 리능훈, 허환, 김두식, 김창천, 양봉태, 박승익, 허인홉, 리재필, 장서진, 리응하, 양남진, 주병록, 안병기, 라형순으로 구성되었다.[78] 이들 중에는 민청 제2차 대회에서 선임된 상무위원 외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제2차 대회 이전 이미 오운식 부위원장이 평남 민청 대표로 선거지도위원회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들 중 일부는 이후 개최된 제3차 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2) 문화부를 통한 당의 군대 민청단체 지도

1946년 10월 21일 북로당 중앙상무위원회는 민청의 향후 행보에

---

77) 위의 자료;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통신과 설치에 대한 결정'(1948.4.6.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면민청 열성자제도 확립에 대한 결정'(1948.4.6.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간부사업세측 일부 수정에 대한 결정'(1948.4.8.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통계 및 보고제도 확립과 문서간소화에 대한 결정'(1948.4.8.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8차 중앙상무위원회 제35차 중앙상무위원회 '통일적 동맹 재정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 일부 수정에 대한 결정(1948.4.13.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78) "북조선민청 제12차 중앙위원회 '동맹 강령 및 규약 수정에 관한 결정'(1948.8.27. 북조선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의미 있는 3건의 결정을 채택했다. 군대에 당조직을 두지 않을 것,[79] 군대 내 민청 조직에 관한 건,[80] 그리고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한 결정이었다.[81]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은 결과적으로 김일성 및 만주 출신 빨치산 계열의 문화부를 통한 군대 내 민청 단체 지도를 가능하게 했고, 세 번째 안건은 당 간부부가 사회단체 간부의 배치에 관여하는 내용으로 당의 사회단체에 대한 개입의 제도화라는 의미를 가진다.[82]

군대에 당조직을 두지 않는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보안훈련소, 철도경비대는 북조선 인민의 민주개혁을 보장하는 전 인민의 군대인 바이 군대의 당군화를 방지하고 군대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83] 그러나 그 이면에는 허가이 등 소련계 한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당이 만주 출신 빨치산 그룹이 주도하고 있던 군조직 준비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정은 군대 내 민청 조직에 관한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

79) 이 결정은 이 조치에 관한 집행과 검열의 책임을 김책에게 위임하고 있다. 군대 창설 작업은 물론 군내 정치사업에 관한 빨치산파의 주도권을 엿볼 수 있다. "군대 내 당조직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1946.10.21)," 『결정집 1946.9~1948.3』, 39~40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271쪽에서 재인용.

80) "군대 내 당조직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1946.10.21)," 40~41쪽; 서동만, 위의 책, 273쪽에서 재인용.

81) "간부 배치 및 이동에 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 『결정집 1946.9~1948.3』, 38~39쪽; 서동만, 위의 책, 246쪽에서 재인용.

82) 간부 배치 및 이동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앞의 소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83) "군대 내 당조직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271쪽에서 재인용.

갖는다. 군대에 당조직을 두지 않는 대신 민청 단체를 조직하고 민족보위성 소속 문화부가 군대내 민청을 관리하게 하는 두 번째 결정은 당시 민족보위상이 만주 출신 빨치산 그룹 최용건이었던 것으로 볼 때, 만주 출신 빨치산 그룹이 군대의 민청 조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항일 빨치산 투쟁'이라는 전통에서 인민군의 정당성을 찾았고 군 창설 초기부터 그 정점에 '민족의 영웅'으로서 김일성을 부각시켰다. 빨치산 그룹 일원이 수장으로 있는 '민족보위성'의 민청 단체 지도는 따라서 군대를 통한 김일성의 민청 개입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84] 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이던 최용건은 1946년 10월 21일 당중앙상무위원회가 군대 내 민청 조직을 결정하기 직전인 8월 인민군의 전신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당시 문화부사령 역시 만주 빨치산 그룹인 김일이었다.

1948년 3월 15일 북조선민청은 제54차 중앙상무위원회를 소집, '내무국 경비처 소속 각여단 보안대 및 학교 내 민청단체들의 지도체계 변경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85] 결정은 내무국 경비처 소속 각

84) 서동만은 군에 대한 통제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여 민족보위성을 통해 만주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에 군사 담당 부서가 없고 당에 관한 문제는 민족보위성 문화부상에 위임되었는데, 빨치산파의 김일이 문화부상으로서 군내 정치사업의 자율성이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서동만, 위의 책, 274쪽; 이대근 역시 김일성이 인민군의 창설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김일성이 귀국 직후 소련의 후원 아래 군대와 보안대 조직에 주도적으로 나섰으며, 1946년 2월 평양학원이 정규 군대를 창건하기 위한 군사정치 간부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김일성의 연설을 들어, 이때부터 인민군 창건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했다. 또한 당에 군대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물이 없고 군대에 당조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과 군대가 독립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일성의 만주파가 초기부터 군대에 많은 세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서울: 한울, 2003), 44~48쪽.

여단 보안대 및 학교 내 민청단체를 지역의 시군면(구) 위원회 소속에서 분리해 '내무국 경비처 문화부'의 지도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맹적이동 등 제반 수속을 4월 10일 전으로 완료할 것을 각 도시군 위원장들에게 지시했다.[86]

민족보위성의 문화훈련국이 군대 내 민청단체의 지도를 담당했으며, 산하에 조직부, 선전부, 민청지도부, 군사출판부 등의 부서를, 각급 부대의 문화부는 선전과, 민청지도과를 두었다는 주장도 있다.[87] 그러나 1948년 9월 11일 북조선민청이 대회 표창사업 추천을 위해 인민군에 보낸 문헌에는 수신인이 '인민군대 총사령부 문화부 민청지도원, 내무국 경비처 문화부 청년사업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시기 군대 내 정치사업 담당 부서가 인민위원회 산하 민족보위성의 문화훈련국과 내무국 경비처 문화부, 그리고 인민군 총사령부 문화부로 나누어져 있고, 인민군 총사령부 문화부는 민청 지도원제로, 내무국의 경우 '청년사업과'라는 별도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8]

---

85) "북조선민청 제54차 중앙 상무위원회 '내무국 경비처 소속 각여단 보안대 및 학교 내 민청단체들의 지도체계 변경에 대한 결정'(1948.3.15.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86) 위의 자료.

87)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51쪽.

88) "제3차 중앙대회 기념 표창사업에 관하여－인민군대 총사령부 문화부 민청지도원, 내무국 경비처 문화부 청년사업과장 앞(1948.9.11, 민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267.

4. 북조선민청의 역할

사회주의체제 청년 조직의 임무는 당 정책의 수행이다. 그러나 통일전선을 표방하는 대중적 청년단체로서 민청의 성격은 민청이 공식적으로 당의 지도를 받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었다. 민청에는 당면 과제였던 정권 수립과 각종 사회개혁 지원, 그리고 사회적 동원을 추동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1) 정권 수립 지원

(1) 정치 활동

민청은 국가 수립 과정에서 인민위원회 참여, 선거지원, 국가보위, 간부 양성 등 정권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선거를 통한 정권기관 수립 과정에서 사회단체 연합 조직의 일원으로 인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북부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 각 행정국 급 각도 시군 인민위원회 대표확대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정당 사회단체, 각 행정국,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를 대표한 137명에는 정당 대표 6명, 사회단체 대표 8명, 행정국장 11명이 포함되었다.[89] 다음날인 2월 9일 23인의 임시인민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되었다.[90]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미소공동위

89)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265쪽.

90) 위원회는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량욱(상무위원회 3인), 보안국장 최용건, 산업국장 리문환, 교통국장 한희진(후임 허남희), 농림국장 리순근, 상업국장 한동찬(후임 장시우), 체신국장 조영렬, 재정국장 리봉수, 교육국장 장종식, 보건국장 윤기녕, 사법국장 최용달, 기획부장 정진태(후임 박성규), 선전부장 오기섭(후임 리청원), 총무부장 리주연, 그 외 박정애, 무정, 강영

원회에 대한 북조선공산당의 민주기지 노선을 구체화한 11개조 당면 과업을 발표했는데[91] 이 시기 각 지역의 민청단체들은 '민주주의국가 건설'에 대한 지지문들을 발표하고[92] '미소공동위원회 공동 코뮤니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93] 북한 지역 내 정치적 일정과 관련해 정당 및 사회단체 연합체, 임시인민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 활발하게 활동했다.

민청은 정권 수립을 지원하는 데 있어 독자적으로도 활동했지만, 이 시기 조직된 정당 및 사회단체 연합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7월 22일 '북조선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의 견고한 연합체'로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94] 북조선민전은 이후 북한 지역에서 전개된 정치 일정에 주민들을 조직·동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북조선민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선거의 진행이었다. 1946년 11월 3일 예정된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제1차 민청 평양시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무렵 평양시 민청단체에는 6개의 구와 3백여 초급단체하에 2만 3,000여 명의 맹원이 조직되어 있었다.[95] 9월 5일 임

근, 강진건, 방수영, 방우용, 김덕영, 리기영, 홍기황, 현창형 등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김광운, 위의 책, 267쪽.

91) 위의 책, 277쪽.

92) "青年의 熱血을 기우려 民主主義國家建設盟誓(金日成同志에게 보내는 편지)", 『正路』, 1946년 2월 27일.

93) 이 성명서는 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위원회 제5차 상무위원회가 위원장 김욱진의 보고를 듣고 모스크바 결정 지지를 성명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각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쏘米共同委員會 共同콤뮤니케 第五号에 對한 聲明(民青北朝鮮委員會請願書)," 『正路』, 1946년 4월 28일.

94) "解放後 北朝鮮 政治情勢," 『조선중앙년감』, 1950(상)(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200쪽.

95) 『로동신문』, 1946년 9월 1일;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시인민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 개최 이후[96] 각 지역별로 선거지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평남 선거지도위원회의 경우 인민위원장인 강진건을 중심으로 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민청의 대표로는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운식이 포함되었다.[97]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2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최대의 당면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역량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특히 사회단체 중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청의 역할을 제고할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98] 그러나 당시 민청과 직총 등 주요 사회단체의 수장을 맡았던 토착 공산주의자들과 당과의 갈등으로 볼 때, 선거에서 민청이 당과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1월 선거 결과 북조선민전이 내세운 후보 중 97%가 당선되어[99] 1,186명의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100]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인민위원으로 당선된 민청 맹원은 전체 인민위원수의 43%를 차지하는 18,8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북조선민전 활동에서 민청이 차지하는 비중을 입증한다.[101]

역사』, 201쪽에서 재인용.

96) 위의 책, 399~400쪽.

97) 위의 책, 402쪽.

98) 김일성, "민주 력량의 확대 강화를 위한 민청 단체들의 과업,"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13~17쪽.

99) 위의 책, 187쪽.

100) "解放後 北朝鮮 政治情勢," 201쪽.

101) 김일성, "민주주의림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조선청년에게 고함: 세계민주청년축전 참가대표 환송체육대회에서(1947.6.23),"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2) 선전 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 활동은 계획된 정치 일정을 완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김일성은 선전전·문화전의 전개 방법을 배워야 하며, 사상적 단결과 통일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102] 농촌 및 각 지역과 직장에 선전망과 선전대를 조직해 주민들에게 국가의 정책을 선전·해석할 것, 국제적 선전망을 조직해 소련 및 중국을 포함한 타 국가들에 조선에 대한 선전 활동을 벌일 것, 모스크바 3국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선전교양사업을 널리 전개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20개 정강을 기초로 하는 '조선의 임시정부건립을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 등을 제기했다.[103]

1946년 5월 30일 '각 도 민주청년동맹위원장 회의'에서 김일성은 '토지개혁에서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민주주의 기본력량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의 임무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맹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청 간부와 맹원을 교육하고 선전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104] 특히 민청의 선전망을 확대하고 민청선전원제도를 만들어 농촌의 각 리, 도시의 각 공장, 학교 마다 선전원을 배치하도록 제기하면서, '청년인테리'는 '인민의 인테리', '건전한 이론가'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105]

349~375쪽.

102) 위의 책, 57~65쪽.

103) 위의 책, 57~65쪽.

104) 김일성, "민주주의조선건국에 있어서의 청년들의 임무: 각도민주청년동맹 위원장회의에서(1946.5.30),"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67~73쪽.

105) 위의 글, 67~73쪽; 김일성, "북조선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1946.11.25),"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177 ~213쪽.

1946년 9월 무렵 지역별로 조직된 선거지도위원회와 함께 선거선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선거선전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토론회, 강연회 등 선전 활동을 전담했으며, 각급 단위의 선거선전위원회는 민청 맹원, 학생, 교원, '선진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한 '선거선전대'를 각 지방에 파견했다.[106] 선거선전대는 강연회, 좌담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를 개최했고, 선전 작업 이후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을 진행했다.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선전과 함께 문맹퇴치운동도 전개되었다.[107] 인민위원회 선거의 경우 특히 민청이 선거선전사업에 적극 동원되었다. 선거선전에 동원된 민청 맹원 수는 39만 6,282명(학생 민청 맹원은 15만 7,809명)이었으며 전체 선거위원회 위원의 28%에 해당하는 2만 2,057명의 민청 맹원이 선거위원으로 활동했다. 1948년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는 민청 맹원 중 선거선전원으로 30만 6,500명이 활동했으며, 선거선전위원으로 활동한 민청 맹원은 전체의 40%로 1만 9,755명이었다.[108]

한편 선거의 선전 및 실시 과정에서 초급단체 민청 맹원들의 직접적 기여가 있었다. 평북 선천군 신부면 여봉 초급단체의 경우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에 선전원 2명, 선거위원 1명, 연락원 22명을 동원하고 경비를 담당했으며,[109] 1947년 2월~3월 면·동 인민위원회 선거사업에는 선전원 2명, 선거위원 2명, 경비원 7명을

106)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사, 1992), 256~257쪽.

107) 위의 책, 259쪽.

10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0』, 201~220쪽.

109)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삼양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1948.9.15),"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동원했다.[110] 또한 1947년 2월 24~25일과 3월 5일 동위원, 면위원 선거에서 맹원들은 해설 선전사업과 경비 및 연락에 동원되었다.[111]

선거 선전 활동뿐 아니라 북한 지역에 전개된 정치 일정들에 대한 선전 해설사업에도 초급단체의 민청 맹원들이 동원되었다.

평북 선천군 신부면 삼양초급단체는 1947년 5월 7일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시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각 정당 사회단체는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김일성의 연설을 해설하는 등의 선전사업에 맹원 2명을 동원했다.[112] 같은 해 평북 선천군 신부면 청녕 민청 초급단체 역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중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김일성의 연설에 대한 지지대회를 개최, 47명이 참가했으며 전체 맹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회를 개최했다.[113] 또한 1948년 유엔 조선위원단 반대항의 대회 14회 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토의에 38명이 참가해 지지결성서를 채택했다.[114] 평북 선천군 선천 고급중학교 교원 민청 초급단체는 유엔 반대운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토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에 맹원들이 총궐기하고, 8·15, 5·1절 행사

---

110) 위의 자료.

111)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여봉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1948.9.16),"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112)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삼양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1948.9.15),"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113)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청녕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1948.9.15),"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114) 위의 자료.

를 위한 선전해설대로 3명을 동원했으며, 학생맹원들을 조직동원해 가정방문, 가두해설하는 선전반을 운영했다.[115] 평북 선천군 선천 고급중학교 민청 학교위원회는 최고인민대의원 선거를 위해 열차공작대와 음악부 부원들은 '근 1개월간 침식을 제때에 하지 못하며 싸워 타 선전대의 모범'이 되었다고 밝혔다.[116]

(3) 간부 양성

해방 이후 각급 교육기관들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것은 간부 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947년 6월 23일 김일성은 세계민주청년축전 참가대표 환송 체육대회에서 민족간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일부로 인민교육기관의 확대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민족간부와 기술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 전에 비해 인민학교수가 230%가 증가했으며, 6개의 대학교에 6,399명이 입학하게 되며, 그중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3,870명이 수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17]

한편 교육제도의 개선에 기초를 두고, 민청 조직 내에 각 지방에서 '로동청년, 농민 청년들의 선진분자로 지도핵심을 길러낼 것'이 요구되었다.[118] 특히 민청이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한

---

115) Item #29 "초급단체 회의록－선천 고급 중학교 교원 민청 초급단체, 1948,"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269,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116) Item #29 "초급단체 회의록-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선천고급중학교 학교위원회 회의록, 1948,"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269,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117) 김일성, "북조선각급학교졸업생에게 고함: 평양시내 중등 전문대학 졸업생 환영대회에서(1947.7.2),"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363~375쪽.

맹원 확장은 조직의 정비와 핵심 간부 역할의 제고를 필요로 했으며[119] 이를 위해 초급단체 강화와 초급단체 간부들의 역할 제고가 함께 요구되었다.[120]

간부양성 기관으로서는 해방 이후 로농정치학교와 도당간부훈련반, 그리고 시, 군당 당원훈련소들이 설치되어 당 및 정권기관 간부들과 함께 민청 간부들이 양성되었고, 각 도·시·군에 민청학원이 설치되었으며 이에 기초해 1946년 11월 5일 중앙청년간부학교가 창설되었다.[121] 고위 간부 양성기관으로서 1946년 7월 1일 설립된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에는 파견된 학생 170명 중 민청 간부 9명이 포함되었다.[122] 1945년 12월 15일 박천 지역에 로농정치학교가 개설되어 정치학, 경제학, 노동운동사, 국사 등의 과목을 교육했다. 이러한 간부양성기관을 통해 많은 민청의 간부들이 교육·훈련되어 민청뿐만 아니라 당 및 정부기관, 사회단체에 파견되었다.[123]

---

118) 채종완, 『청년사업경험』, 104쪽.

119) 위의 책, 105쪽.

120) 위의 책, 105~106쪽.

121) 위의 책, 109~110쪽.

122)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재가에 의해 설립된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는 소련군 장교를 고문으로, 강사진은 소련공산당원인 재소 한인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는 간부 양성 교육에서 소련의 영향을 반영한다. 교육과정은 처음에는 3개월 단기 코스였다가, 1948년 6개월 코스로 확대 방침이 세워졌다. 김성보, "북한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정과 경력 분석: 정권기관 간부를 중심으로(1945~1950)", 『동북아연구』, 3권(1997), 217~218쪽.

123) "박천에 정치학교 개설," 『正路』, 1945년 12월 14일.

2) 사회개혁 지원

(1) 토지개혁 지원

1946년 2월 9일 선거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1개조 당면과업'과 '20개조 정강'을 통해 '민주개혁'의 방침을 드러냈다. 제기된 민주개혁의 사업 중 가장 복잡하고 대중적 참여를 필요로 했던 것은 토지개혁과 현물세 납부사업이었다.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 및 각 국장의 연대회의'에서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공포된 이래[124] 3월 31일까지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사회단체들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사업을 담당했다. 직맹, 민청, 여맹 조직은 농촌에 토지개혁지원대를 파견했으며, 특히 민청은 선전대와 가창대를 조직해 해설선전사업을 담당했다.[125] 토지개혁은 사회단체들이 조직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전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행에 사회단체들이 조직적 차원으로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토지개혁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지도 아래 90,697명의 고농·빈농으로 구성된 11,500여 개의 농촌위원회가 리 단위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6]

그러나 당과 사회단체 등 서로 다른 단체에의 중복 가입이 가능했던 당시의 조건으로 볼 때, 민청의 경우, 학생을 제외한 다수의 민청 맹원들이 당, 인민위원회, 농민단체 등 각자의 직군 소속으로 토지개

---

12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338~339쪽.

12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0』, 201~220쪽.

126)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289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345쪽.

<표 5> 평안북도 토지개혁 동원 인원 구성

소속	인원 및 비율
당	944명(8.6%)
인민위원회	2,495명(22.7%) -도 304명, 군 800명, 면 1,391명
보안 관계자	676명(6.2%)
노동조합	821명(7.5%)
농민동맹	2,639명(24.1%)
민청	3,105명(28.3%)
여맹	285명(2.6%)
총계	10,965명

자료: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개혁사』, 127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347~348쪽에서 재인용해 구성.

혁 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127] 토지개혁 과정에서 동원의 사례로서 평안북도의 동원 인원 구성은, 토지개혁 동원 인력 중 기본적으로 민청 맹원의 참여가 가장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128]

토지개혁에 민청의 역할이 컸던 근거로서 인민위원회 위원 중 민청 맹원이 43%를 차지했으며, 민청의 면 이상 간부 중 85%가 당원이었

127) 정당과 사회단체에 중복 가입했던 근거로서, 미군 노획문서에 포함된 인민군 병사의 자서전을 들 수 있다. 56추격기련대 2대대 1중대의 무기공작원 직무를 맡은 특무상사 김주석과 비행학생 문택용은 민청원인 동시에 당원이었다. 또한 윤희철은 민청, 직맹, 조쏘문화협회, '애투' 등 4개 사회단체와 로동당에 소속되어 있었다. 윤희철은 현물세창고 경비대원으로, 문택용은 인민공장의 자위대로 근무하기도 했다. Item #111.1~111.5 "자서전 외," 1950,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269, SA2009 Ⅰ Series WAR200700443 ,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128)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개혁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27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347~348쪽.

던 점도[129] 감안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서 민청 맹원으로 분류되는 인력은 대부분 학생이며, 다른 민청 맹원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당, 인민위원회, 농민동맹, 보안 관계자(보안대·경비대·자위대) 등의 분류로 통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46년 1월 결성 시기 40여만 명이었던 맹원 수가[130] 1946년 8월 129만 명으로 급증했는데[131] 이는 토지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농민 청년들이 가맹했기 때문이다.

(2) 교육개혁 지원

가. 학교 교육 지원

민청이 학생들의 상급 학교진학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1948년도 신입생 추천사업에 대한 결정」은, 외형상으로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청년학생들 내에서 민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정서 내용에 "'1947년도 신입생전형 협조사업총결에 대한 결정서' 내용을 다시 검토 비판"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이미 1947년도 신입생 전형에서 '협조'의 형식으로 유사한 사업이 전개되었고, 1948년도 학기에 '신입생 추천'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132] 특히 이 사업은 "다수 근로인민의 자제가 지원하는 조건에서 모집 인원수를 초과확보할 것"을 지시해, 학생층에서 노동자 농민계급 비율의 제고를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133]

---

129)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제1편, 51쪽.

130) 『正路』, 1946년 1월 25일.

131)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민청 위원장 김욱진이 밝혔다.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제1편, 51쪽.

132) "북조선민청 제56차 중앙위원회 '1948년도 신입생 추천사업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1948.3.2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학교 내의 모든 학생 단체들을 민청 단체에 합류시키고 민청단체에 학생맹원을 모집하는 데 대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각 학교와 대학들에 민청 초급단체와 위원회들이 조직되었다.[134] 당시 학교의 민청 단체는 학교 내 공산주의 성향의 학생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사상교양하는 역할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개혁 등을 통해 다수의 농민 출신 청년들이 학교로 인입되면서 학생의 구성성분이 노동자 농민 중심으로 변화되기도 했다.[135]

나. 소년단 지도

민청은 아동들의 유일한 단체로서 소년단의 창설과 지도의 책임을 맡았다.[136] 1946년 4월 15일 민청중앙위원회 제1차 확대위원회에서 학교 및 농촌, 직장들을 중심으로 소년단을 조직하고 이미 조직된 소년 단체들을 유일한 소년단 조직에 합류시켜 통일할 것을 결정했다.[137] 1946년 5월 30일 각도 민주청년동맹 위원장 회의에서 민청이 소년단 조직사업을 지도, 지원할 것을 제기한[138] 이후, 같은 해 6월 6일 조선소년단이 민청의 지도하에 창설되었다.[139] 소년단 단체는 학생들의 학과 학습과 규율의 강화, 사회적 노동 조직, 각종 문화 오락 사업들을 전개했고[140] 소년단원들의 영예감을 고취하고 단결과 규율

133) 위의 자료.

134)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 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77쪽.

135) 위의 책, 77쪽.

136) 위의 책, 80쪽.

137) 위의 책, 80쪽.

138) 김일성, "민주주의조선건국에있어서의 청년들의 임무," 67~73쪽.

139)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 교육의 발전』, 80쪽.

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단의 상징으로서 단기, 복장, 넥타이, 휘장 등을 제작했다.[141] 소년단 활동을 위해 학교에 소년단 실이 설치되었고, 문학 크루쇼크, 운동 경기 크루쇼크, 연예 크루쇼크 등을 조직, 각급 학교에서는 모범 소년단과 분단 창설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각종 과외사업과 교외사업이 조직되었다.[142]

1947년 무렵 북한 지역의 도시, 농촌, 학교, 직장 등에 1,783개의 소년단 단체에 62만 명의 단원이 가입했다. 그러나 이 시기 학교 내 소년 단체들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치중해 연령과 심리에 맞도록 사업을 조직하지 못하고, 학교와 연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143] 이러한 결점을 시정하기 위해 1947년 3월 소년단에 대한 민청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소년단 사업에 민청의 우수한 간부를 파견하고 지도 방법을 개선할 것이 당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는 민청 사업에 반영되었는데, 1947년 3월 26일 제21차 민청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학교와 농촌, 가두 등에서 소년단 조직을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민청 단체들이 소년단 사업의 지도 강화와 민청의 후비대 육성하는 사업 진행, 소년단에 대한 지도체계와 방법을 개선할 것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에서 시·군에 이르기까지 '소년부'를 설치할 것이 결정되었는데[144] 이는 실제로 1948년 민청 제3차 대회의 조직개편에 반영되었다.

---

140) 위의 책, 80~81쪽.
141) 위의 책, 81쪽.
142) 위의 책, 81쪽.
143) 위의 책, 81쪽.
144) 위의 책, 81쪽.

(3) 사회적 동원 추동: 건국사상총동원운동

1946년 11월 김일성이 사상의식 개변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제기한 이후, 민청 중앙위원회는 1947년 1월 4일 「학생 사업 특별 강화에 대한 결정」을 채택, 학생들의 기풍과 사상의식 개변운동을 전개했다. 앞서 기술된 민청의 신입생 추천사업에 대한 관여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학생애국사상 제고운동' 기간 중 성과를 높일 것이 강조되었다.[145] 이 운동의 결과 함경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일부 락후한 경향들과 투쟁하며 호상 비판하며 자기비판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146] 학교 유일 교육체계 확립과 관련해, 학교에서 학과 학습의 질과 규율 강화, 사회문화 사업들이 전개되었고 각종 경쟁운동들이 전개되었다.[147]

함경북도의 경우, 1947년의 하기 학생휴양사업 조직과 대학입학생 추천사업에서 범한 '과오를 퇴치'한다는 목적으로 같은 해 10월 '학생애국사상 총궐기사업'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학업성적 제고를 위해 지역적 반을 조직하고, 반 내에 학과별 지도 책임자를 선정해 학생들을 상시적으로 지도, 매주 1회씩 집체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벽보판에 '문제란', '해답란'을 설정, 모범 답안을 제시해 초급단체에 학과성적의 예정 점수를 설정하고 '반대항경쟁운동'을 전개했다. 반면, 교원들의 형식적 지도, 교원들의 민청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결점으로 지적되어 당시 학교 내 민청 초급단체와 교원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148]

---

145) "북조선민청 제56차 중앙위원회 '1948년도 신입생 추천사업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1948.3.2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146)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 교육의 발전』, 78쪽.

147) 위의 책, 78쪽.

5. 결론

사회주의체제 청년단체의 기본적 성격은 사상교양단체이다. 1948년 11월 민청 제3차 대회는 사상교양단체로서 민청의 성격을 강조했으며, 이는 해방 이후부터 정권 수립 시기까지 조공 분국 지도부의 성격, 정치적 상황 등의 영향하에 사회주의체제 청년단체로서의 성격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결성 이래 민청 중앙 부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조직부와 선전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민청 지도부는 조공 분국 지도부의 다원성을 반영, 토착 공산주의자 그룹과 만주 빨치산 그룹, 그리고 연안파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맹원 수는 토지개혁 시기 증가했다가 1947년 맹원 재등록 과정에서 감소, 1948년 6월 소년단 사업의 강화를 계기로 다시 크게 증가되었다.

이 시기 민청은 소군정의 영향, 당 지도부 구성의 다원성, 공산주의적 색채를 가졌으면서도 대중적 단체를 지향했던 '정체성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러한 혼란의 양상은 당의 사회단체 지도에 대한 민청과 직총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서 확인된다. 당의 민청에 대한 지도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민청 위원장과 당 지도부의 갈등으로 인해, 이 시기 민청은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은 민청 지도 간부들에 대한 인적 지도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했다. 특히 군대 민청단체에는 문화부를 통한 지도가

148) "북조선민청 제55차 중앙위원회 '함북도 학생애국사상제고운동전개정형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1948.3.22),"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이루어졌다. 당시 문화부사령은 만주 빨치산 그룹 출신인 김일이었으며, 문화부를 통한 지도는 만주 빨치산 그룹이 군대 민청 조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인민군은 '항일 빨치산 투쟁'이라는 전통에서 정당성을 찾았고, 군 창설 초기부터 그 정점에 '민족의 영웅'으로서 김일성을 부각시켰다.

이 시기 민청의 역할은 각종 사회개혁과 정권 수립 지원, 그리고 사회적 동원을 추동하는 데 집중되었다. 복수의 단체에 중복 가입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청년들은 민청뿐 아니라, 당과 인민위원회, 각종 사회단체들에 중복 가입해 활동했다.

이 연구는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적 조직의 하나인 청년동맹을 해방 이후부터 정권 수립 시기까지 미시사적 접근으로 고찰함으로써,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을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살펴본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 연구에서 미시사적 접근은,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 논의의 기반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11월 2일 / 수정: 11월 26일 / 채택: 12월 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개혁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채종완, 『청년사업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0: 주체형의 혁명적 근로단체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 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2) 논문

김일성, "미래의 조선은 청년들의 것이다," 『청소년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2, 동경: 조선청년사, 1966.9(번인출판)〕.

_____, "민주 력량의 확대 강화를 위한 민청 단체들의 과업(북조선 민주 청년동맹 제2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46.9.29)," 『청소년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2, 동경: 조선청년사, 1966.9(번인출판)〕.

_____, "민주 조선 건설에서의 청년들의 임무(각 도당 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도민청 위원회 위원장 련석 회의에서, 1946.5.30)," 『청소년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2, 동경: 조선청년사, 1966.9(번인출판)〕.

_____, "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앞두고 조선청년에게 고함: 세계민주청년축전 참가대표 환송체육대회에서(1947.6.23)," 『청소년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2, 동경: 조선청년사, 1966.9(번인출판)〕.

_____,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 결성에 대한 보고: 북조선민주주의각정당 사회단체 대표회의에서(1946.6.22),"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_____, "북조선각급학교졸업생에게 고함: 평양시내 중등 전문대학 졸업생 환

영대회에서(1947.7.2),"『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_____, 북조선민주선거의 총결과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1946.11.25),"『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_____, "북조선직업총동맹 제2차 중앙대회에서 진술한 연설,"『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_____, "조선 민주 청년 동맹 북조선 위원회 결성에 대하여(북조선 민주 청년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한 연설, 1945.1.17),"『청소년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2, 동경: 조선청년사, 1966.9(번인출판)〕.
_____, "학생 동맹을 민주청년 동맹에 통합할 데 대하여(학생 청년들에게서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 1945.12.28),"『청소년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2, 동경: 조선청년사, 1966.9(번인출판)〕.
박용국, "당 통보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근로자』, 제7호(1955.7.25).
_____, "민주 청년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적극적 방조자이다,"『근로자』, 제1호(1956.1.25).
안 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새 조국 건설의 초행길을 열어나간 위대한 영도,"『력사과학』, 2호(1995).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위원회의 창설,"『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6.11).
편집부, "레닌공청 11차 대회는 무엇을 토론결정하였는가,"『청년생활』, 제2권 제6호(1949.6).

3) 신문

『正路』
『로동신문』

4) 기타 자료

『조선중앙년감 1949年版』(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1).
『조선중앙년감』, 1950(상)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파주: 한울, 2008).

김행선, 『해방정국청년운동사』(서울: 선인, 200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서울: 한울, 2003).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서울: 돌베개, 2002).

이종석,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성남: 세종연구소, 1998).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파주: 한울, 2011).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사, 1992).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서울: 공동체, 1989).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제1편(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2) 논문

김성보, "북한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정과 경력 분석: 정권기관 간부를 중심으로(1945~1950)," 『동북아연구』, 3권(1997).

_____, "지방사례를 통해 본 해방 후 북한사회의 갈등과 변동: 평안북도 선천군," 『동방학지』, 제125집(2004).

이주철, "북조선로동당의 당원과 그 하부 조직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3) 신문

『동아일보』

4) 기타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미군 노획 문서)>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동림3구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 (1948.9.18),"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청녕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 (1948.9.15),"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2-9 "동맹원 명부, 선천사범 부속 인민학교 초급단체,"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01269,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Series WAR20060139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32 "평북 선천군 선천면 초급단체 간부명단,"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01269,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Series WAR20060139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7-4 "선천군 민청 가맹원서,"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01269,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2006, WAR200601391, 서울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7-5 "선천군 민청 가맹원서,"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01269,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2006 WAR200601391, 서울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삼양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 1948.9.15,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여봉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 1948.9.16,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삼양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 1948.9.15,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2-12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신부면 청녕 초급단체 총회 회의록,” 1948.9.15,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39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9 “초급단체 회의록-선천 고급 중학교 교원 민청 초급단체, 1948,”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269,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29 “초급단체 회의록—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군 선천고급중학교 학교위원회 회의록, 1948,”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269,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Item #111.1~111.5 “자서전 외,” 1950, RG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Record Group War20061269, SA2009 Ⅰ Series WAR200700443 ,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

“북조선민청 제9차 중앙위원회 ‘제3차대회 소집 및 각급 지도기관 사업 결산과 선거사업 연기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1948.2.1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70차 중앙위원회 ‘도시군 부서 일부 폐지와 간부 정원 축소 및 사업방식 개선에 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섭, 1948.3.3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통신과 설치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1948.4.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1차 상무위원회 회의자료(1946.10.2),”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267.

“북조선민청 제2차 중앙확대위원회 결정서 제3호 ‘민청각급 기관 인원 축소에 관한 결정(1946.12.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14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3호 ‘전면적 맹원재등

록사업에 관한 결정'(1947.1.11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북조선민청 제17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2호 '맹원재등록사업상 착오를 시정할데 대한결정'(1947.2.17 중앙민청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14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5호 '규약수정에 따르는 제반 조치에 관한 결정'(1947.1.11,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14차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서 제7호 '극비: 민청망조직에 대한결정'(1947.1.11,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북조선민청 제9차 중앙위원회 '동맹조직장성문제에 관한 결정'(1948.2.13,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9차 중앙위원회 '제3차 대회 소집 및 각급 지도기관 사업 결산과 선거사업 연기에 대한 결정'(1948.2.16,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9차 중앙위원회 '조직문제에 관한 결정'(1948.2.16,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욱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도시군 부서일부 폐지와 간부정원축소 및 사업방식 개선에 관한 결정'(1948.3.31,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통신과 설치에 대한 결정'(1948.4.6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면민청 열성자제도 확립에 대한 결정'(1948.4.6,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간부사업세 측 일부수정에 대한 결정'(1948.4.8,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7차 중앙상무위원회 '통계 및 보고제도 확립과 문서간소화에 대한 결정'(1948.4.8,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8차 중앙상무위원회 '제35차 중앙상무위원회 '통일적 동맹 재정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 일부 수정에 대한 결정(1948.4.13, 북조선민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12차 중앙위원회 '동맹 강령 및 규약 수정에 관한 결정'(1948.8.27, 북조선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MF267.
"북조선민청 제54차 중앙 상무위원회 '내무국 경비처 소속 각여단 보안대 및 학교내 민청단체들의 지도체계 변경에 대한 결정'(1948.3.15, 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제3차 중앙대회 기념 표창사업에 관하여-인민군대 총사령부 문화부 민청지도원, 내무국 경비처 문화부 청년사업과장 앞(1948.9.11, 민청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267.
"북조선민청 제56차 중앙위원회 '1948년도 신입생 추천사업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1948.3.2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민청 제55차 중앙위원회 '함북도 학생애국사상제고운동 전개정형에 대한 결정'(북조선민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섬, 1948.3.22),"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MF483.
"북조선로동당강원도인제군당상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北韓關係史料集, 2: 朝鮮勞動黨 資料, 2(1945年~1948年)』(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
KBS 다큐멘터리 <현대사 발굴>, 1991년 6월 27일.

Abstract

A Study on the Early Stage of the "Youth League" of North Korea(1946~1948)

Kwak, Chaewon(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Youth League is well known as one of the key organizations to make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sustainable. It has been fostering the youth as a successor of the regime, but at the same time, ideologically and systematically controlling the youth under the guidance of the Korean Worker's Party(KWP). Thus, the youth of North Korea is represented as a "subject" and "object" of the regime.

At the early stage, the Party could not direct the Youth League(Democratic Youth League(DYL)) officially because the "United Front" policy made them representing popularity, their communist identity unexposed. However, the party influence over the DYL has gradually been increased. By the third DYL Congress in 1948, the KWP had tried to improve the DYL substructures by member registration system and ideology indoctrination. During this period of time, the DYL was expected to support important political challenges

such as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social reforms and mobilize young people to achieve the target figures of the national economic plan. The DYL was identified as an ideological education organization at the third Congress in 1948.

Keywords: North Korea, Youth League, Democratic Youth League, Kim Il Sung, Korea Worker's Party, Party Guidance